

ACC, 올 하반기에도 흥미로운 '인문 만찬'

음식, 인생과 예술, 미디어아트, 추상미술... 올해 하반기에도 동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비롯해 흥미로운 인문 강좌들이 시민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수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ACC인문강좌는 주제만으로도 눈길을 잡아끈다. 그동안 ACC(전당장 이강현)는 문화예술을 비롯해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 강좌를 매개로 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다채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왔다.

ACC는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ACC 인문강좌'를 운영한다. 강사진은 음식인문학자, 미술사학자, 미디어아티스트, 미대교

수 등으로 전문성과 아울러 대중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선다.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4개의 흥미로운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 만찬'에 초점을 맞췄다. ACC 인문강좌는 온라인 채널 ACC 플러스에서 영상으로도 다시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은 오는 31일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연다. '동아시아 음식문화교류사 공부법'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는 주교수는 문화와 인문학, 역사학의 시선으로 음식을 해석하고 연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아시아학과 방문 교수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유네스코분과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차폰 잔폰 짬뽕', '음식전쟁 문화전쟁', '조선의 미식가들' 등과 같은 흥미로운 저서를 펴냈다.

두 번째 문(9월 28일)은 주제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좌다.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를 주제로 심상용 미술사학자의 강연이 마련돼 있다. 심 교수는 그림을 모티브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예정인데 인생, 죽음, 예술, 사랑, 치유가 그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이사(2012~2014)로도 활동했던 심 교수는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 '시장 미술의 탄생', '현대미술의 욕망과 상실' 같은 의미있는 저서를 발간했다.

3회차 강연은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강사로 나서 시각언어와 창의성을 고찰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이남 작가는 지금까지 동양과 서양의 고전회화를 기본 텍스트로 영상과 소리와 같은 미디어 요소를 입혀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특히 이 작가는 자연과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명화들을 차용해 디지털이미지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해왔다. 제1회 올해의 미술가 대상 특별상, 올해의 미술인상 청년작가상, 제7회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2020 엔어워드 디지털미디어 & 서비스 부문 디지털 콘텐츠 분야 그랑프리 수상했다.

마지막 강의 문(11월 30일)은 백남준 연구자 김은지 교수가 연다. 올해는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는 해다. 이번 강좌는 그런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김 교수는 '백남준의 볼 수 있는 음악-움직이는 추상미술'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특히 계속해서 움직이는 추상 형태를 추구하는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을 조명함으로써 음악의 리듬과 박자, 멜로디를 선과 색, 형태로 변환시키는 백남준의 미학을 다채롭게 고찰할 예정이다.

한편 'ACC 인문강좌'는 문화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성인 대상 강좌다. 상반기 강좌는 동시대-아시아-문화예술 등 세 가지 주제별 전문가를 초청,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회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 31. 주영하 교수

'동아시아 음식문화교류사 공부법'

9. 28. 심상용 교수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

10. 26.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

'미디어아트, 생기를 불어넣다'

11. 30. 김은지 교수

'백남준의 볼 수 있는 음악...'



주영하 교수



심상용 교수



이이남 작가



김은지 교수

ACC '아쿠아 천국' 인기몰이...관람객 5만 명 돌파



'제주산호뜨개'

기후위기 시대, 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물과 인간의 관계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아쿠아 천국' (9월 12일까지)이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해 눈길을 끈다.

이번 5만 명 돌파는 지난 6월 9일 개막 이후 59일 만에 거둔 성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쿠아 천국'의 15일 기준 입장객 수가 5만4000여 명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출신 작가 11명의 작품 14점이 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물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모티브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작품을 배

치했으며 시각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제주도 예술가 단체 '에코오롯'의 '바다의 눈물', '플라스틱 만다라', '제주산 호뜨개'.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전시를 구성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아드리앵 엠(M) & 클레어 비(B)의 작품 '아쿠아 알타-겨울을 건너서'도 인상적이다. 베니스 대홍수(2019년)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입체적인 책과 증강현실로 구현해 이색적인 상상을 환기한다.

한편 전시 마지막 날에는 고래의 눈을 형상화한 '플라스틱 만다라' 작품을 해체해 작품의 일부로 제작한 유리병 목걸이 100개를 관람객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드리앵 M & 클레어 B 작 '아쿠아 알타-겨울을 건너서'

'그대의 고운 노래는 내 영혼을 일깨우고'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창립 14주년 27일 기념음악회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배우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창립 14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서구 청소년수련원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창립 14주년 기념음악회이자 8월 공연인 이날 무대는 '그대의 고운 노래는 내 영혼을 일깨우고'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지난 2008년 8월 22일 한울림에서 시작한 가곡애창운동이다. 회원들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회원 전원이 무대에 올라 박호진 지휘자의 지



박호진

도 아래 연주한다.

먼저 회원 전원이 동심으로 돌아가 국민 동요 '섬집 아기'와 '오빠 생각'을 부르며 무대를 시작한다. 이어 '못 잊어', '청산에 살리라' 등 30여 곡의 가곡을 회원들 모두 돌아가며 부른다.

특별한 축하 무대도 이어진다. 초등학교 박수



우리가곡부르기 공연 모습.

안·세준 형제가 '꽃이 되고 싶은 별', '비 오는 독일'을 부르며, 투철크 첼리스트인 나인국과 김기웅이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등을 연주한다. 아울러 테너 홍명식과 소프라노 김지나가 축하 무대를 꾸민다.

한편 오는 9월 우리가곡부르기는 '애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사일 수고 덜고 풍년을 기원합니다"

고창농악 꽃대림 축제, 25~28일 고창농악전수관

농사일의 수고를 덜고 풍년을 기원하는 '고창농악 꽃대림 축제'가 열린다.

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는 제3회 꽃대림 축제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꽃대림 굿'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풍요를 채워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축제는 모두 7개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날 25일 펼쳐지는 '고창농악 상설굿판'에서는 먹거리와 함께 '고창농악 판굿과 구정놀이'를 즐길 수 있다.

26일에는 고창의 명창 진재선의 이야기를 담은 국악뮤지컬인 '이팝:소리꽃'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날 27일에는 5개의 공연이 펼쳐진다. 고창농악보존회의 '풍장굿'과 강릉농악보존회의 '강릉농악'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농악을 도시회악으로 재해석한 연희컴퍼니 유희의 '포스트 풍장'이 이어지고 풍물, 탈춤, 사자춤 등 다채로운 기예를 볼 수 있는 THE 광대의 '도농농 뛰는놈 나는놈' 공연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청춘들의 굿패인 '청춘 굿패'가 흥겨운 고창판굿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창농악 상설굿판'

김백기 아티스트 퍼포먼스 'VIVA! 예술路'

20일 비바아트 스페이스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2022 VIVA! 예술路'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김백기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공연을 오는 20일 오후 5시 비바아트 스페이스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비바아트 스페이스 퍼포먼스 아트 개인전으로, 이산 퍼포먼스 아티스트에 이은 두 번째 무대다.

이번 공연은 '달과 6펜스'를 주제로 김백기가 예술의 극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세부적인 부와 명예의 유혹에 갈등하는 예술가들의 자전적인 모습을 상징화해 표현한 작품이다.

김백기는 곡성출신으로 홍익대 도예과를 졸업하고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800회가 넘는 퍼포먼스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 한국 퍼포먼스 대중화의 선봉에서 끊임없는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김백기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 무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날 공연은 김백기의 퍼포먼스 이외에도 실험예술제 발자취 포스터, 사진, 영상전과 작가와의 토크 시간도 마련됐다.

VIVA! 예술路는 올해 10월 3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들을

시 전문지 '상상인', 선정문학상 공모...상금 1000만원

시 전문지 '상상인'이 1000만원 상금의 '선정문학상'을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등단시인으로 시 50편 이상을 오는 9월 15일까지 한글파일로 작성해 메일(ssaangin@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보낼 때는 시집 원고를 (가제, 약력, 목차, 본문)로 보내야 한다.

상상인은 이번 공모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닌 소통하는 문학과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문학을 지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정문학상 운영위원회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공모는 선정산업이 후원한다. 발표는 오는 9월 개별통보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선정산업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상 수상 작품집은 도서출판 상상인으로 발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